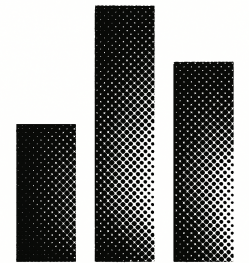


“자네 집이 어딘가?”
 직장에서 “사는 곳”은 가벼운 대화
 주제로 자주 등장한다. 몇 해 전부터 성인 지
 감수성이란 단어가 사무실 내에서도
 널리 사용되면서 상류층이 직원의
 연애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는 (여전히
 있지만) 하지(만) 확실의 줄었다. 즐겨 찾던
 대화 주제 하나가 금기시되면서 상사들은
 직원을 이 어느 동네 사는지를 묻기조차
 물어보기 시작했다. 물어본 것을 까먹고 또
 물어본다. 보통의 대화는 사는 곳의 위치를
 묻는 것으로 시작되어 직원이 집 값이
 비싼 동네에 살면 “이야 좋은 곳 사네”라며
 칭찬해주거나, 본인과 가까운 곳에 살면
 대단한 공통점이랄도 발견한 듯이 그곳의

랜드마크를 재차 확인하
 랑도 변경하며 위치를 재차 확인하
 직원이 만 사할 공간에 들어간 상용이리하면
 대화가 평소보다 물 건너간다. 무제한 원
 허용권이라도 얻은 것처럼 사사들은 곧
 결혼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관심으로 위장된 선
 넘는 질문을 서슴없이 던지려한다.
 복요원 퇴근 후 회식 자리였다. 부사
 직원들이 다 포이저 모두 췌장을 채웠고,
 과장님의 건배사가 이어졌다. 마침내
 과장님이 “원샷”을 외치자, 모두가 술을 한
 번에 탁 털어 마셨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끼리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옆에 앉아 있던

플칠면 1



홈스윙홈
우수비



탐장님 금내게 결혼 할 준비가 되거나하며
 대화의 끝꼬를 둘러쌌다. 직장 사사들 물론
 내면 나하 결혼 준비에 대해 굳굳히 가장
 자숙하는 금내 결혼, 신, 금내 금내 금내
 젊지않았다. 이번에도 빼먹지 않고
 탐장님 은 신장 은 어디로 갔나고 들었다.
 나는 왠지 금내 탐장님 구했다고 들었다.
 옆에 있던 탐자 선택을 금내 금내 금내 금내
 젊은 듯 금내 금내 금내 금내 금내 금내
 Q1 너도 홈스윙홈냐? (광주
 플치구에는 홈스윙홈리버티,
 홈스윙홈에코코티,
 홈스윙홈에코코티, 등 이름이
 홈스윙홈으로 시작하는 아파트가 많고

된 기분으로 데굴데굴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탔다. 시장의 시옷도, 경제의
 기억도 모르는 나는 답답한 마음에 허황한
 상상을 해본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는
 집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동
 거리만큼 값이 매겨지는 기차 승차권처럼
 집값도 단순히 주택 면적만으로 정해지면 좀
 더 공평해지려나? 아니야. 그럼, 사람들은
 아파트 평수로 비교하겠지? 그럼, 1인 가구는
 17평, 2인 가구는 25평, 3 ~ 4인 가구는
 34평에서만 살 수 있게 한다면? 이젠 또 너무
 강제적인 것 같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답을
 알았으면 애덤 스미스요, 마르크스겠지.

튼구름을 잡다 보니 어느새 택시는

직장동료들도 그곳에 뭉치 산다.)
 A1 아니요. 저는 금내 구이 없어서 플치2지구에
 간했어요. (앞사 말했던 홈스윙홈클래스를
 포환하고 가는 브랜트 아파트는 플치1지구에
 포이저 있고, 2지구는 금내 아파트가 많다.)
 Q2 어딘데?
 A2 브라운스톤이요.
 Q3 몇 평?
 A3 30평이요. (정확히 말하면 29평인데,
 림의 자리에서 반쯤 팔렸었다.)
 Q4 사서 들어갔어?
 A4 네. 대출받았어요.
 Q5 대출도 능력이지. 집값이 얼마데?
 A5 2억 7천이요.

Q6 그렇게 싸? 몇 년 준공인데?
 A6 2018년인가 그래요.
 Q7 누구 명의로 했어?
 A7 공동명의로 했어요.
 Q 잘했네. (뭘 잘했다는 건지.)

집의 위치, 면적, 집값 등.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압박 질문을 하나하나 대답하고
 있자니 나에 대해 낱낱이 평가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스멀스멀 더러워졌다. 나는
 괜히 브라운스톤이라는 아파트 이름조차도
 대답하기가 꺼려졌다. 이름이 S클래스는커녕
 골드, 실버도 아닌, 그냥 둘이라니. 마치
 “저의 클래스가 스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1차 회식을 마치고 돌멩이가

표원2지구 브라운스톤아파트 입구에
만났다. 택시에서 내려자, 입구 옆에 있는
브라운스톤문물웅개새사가 보였다. 그곳에서
집의 잔근 치르던 녀석이 새라났다. 타인들은
안웃거리 산아 너무도 쉽게 재단해 버린
우리집을 샅샅이 훑. 형들과 나, 집주인 그리고
법무사. 네 명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모였었다. 아새한 끝하기 속에서 네 명 모두
건강한 채 복각인형처럼 똑딱거렸다. 형들과
나는 아무런 은행 돈이 없다고 해도 여단위가
넘는 거금을 써본 적은 처음이라 잔뜩
신경이 곤두서있었다. 중년의 여성이었던
집주인도 주택 거래가 익숙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건넌던 법무사의 명함에는 나이가 지긋한
중년 남성의 사진이 있었는데, 우리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갓 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보이는 청년이었다. 아마 우리가 소개받은
법무사의 법률사무소 신인인 듯했다.
법무사는 새 옷처럼 보이는 깨끗한
서책을 읽은 채, 캐리커췌물에서 불펜을
꺼냈다. 그는 대학생이 수학 과외를 해주듯
어설피표지만 진지하게 거래할 집의 가격,
주택담보대출금, 집값에서 대출금을 빼고
우리가 맡겨야 할 나머지 금액을 중이에
꼭꼭 둘러 적어가며 설명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혹여나 놓칠새라
유심히 들었다. 모두가 서둘러 보였으나
하루를 앉아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이 조금만 앉아서 됐다.

형렬이 먼저 집주인에게 잔금의 일부를
이체했다. “바르 집주인의 핸드폰에서
잔금을 이체했다.” “따라” “잔금음이 또 한 번
들렸다. 이렇게 집주인과 우리 사이의 주택
거래 절차는 큰 이었다. 집주인은 아새한 듯
웃으며 전자기 음지름을 나에게 건넸다. 두
손이 북적해질 만금 많았다. 아파트 운동
환관 전자기 2개, 우리가 산 집의 도어락기
4개, 음식물쓰레기 개별 종량제 카드 1개.
법무사가 이 자리를 마무리하려 하자,
집주인은 옆에 내려췌던 금직한 무언을
우리에게 건넸다. 잔물리는 잔 두루마리

형렬이 아파트 옆 잔물관웅운 지하 우리
집으로 올라갔다. 문 앞에서 비미변호를
관망하며 도어락기 음지름을 받고 “빠리락” 전자자차와
함께 대문으로 들어갔다. 잔금음은 왠지 잔뜩
바라세와과 잔금 잔금 세상처럼 고요했다.
문 안쪽에는 나와 형렬이 함께 찍은 네컷
사진들이 웅기웅기 붙어있었다. 내가

플칠면 1

발행일 2025년 10월 7일
글쓴이 우수비



작은배가 진행하는
<일상묘사 : 수필 합형 모임>에서
탄생한 글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댓글로 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글은 jagunbae.com에서 확인하세요.

좋아하는 디퓨저 향이 났다. 우리 집에
도착했음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사이즈가
290mm인 형렬의 기다란 신발 옆에
신발을 벗어두고 중문을 열었다. 형렬이
소파에 누워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다.
흡사 알래스카 곰이 누워있는 것 같았다.
널빤지만 한 발바닥을 내놓고 벌러덩 자는
모습이 귀여워서 킁킁 웃음이 나왔다. 나는
자고 있는 형렬을 나무 안듯이 품 안 가득
껴안았다. 몸통이 커다래서 양팔에 겨우
담겼다. 든든하고 편안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그 순간 여기가 어디든,
어떻든, 아무렴 좋았다.